지역 메아리

김제경찰서 불법주정차 근절 총력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6월 한달간 보행자를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법행위로 김제경찰서에서는 매주 3회(월·수·금) 김제경찰서 교통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수 없는 횡단보도, 인도 등에 대한 즉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박훈기 김제경찰서장은 이번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만큼 김제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확립 및 보행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하였으며 운전자들에게도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완주군이 '가정내 돌봄 결핍 지역사회 엄마쌤 교육통합모델 구축'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완주군은 지난 8일 2018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로 선정된 가정내 돌봄 결핍 지역사회 엄마쌤 교육통합모델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디자인단은 공공정책에 '수요자 중심'이라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이용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혁신 플랫폼으로 최근 행정서비스 개선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개선 기법의 하나다.

이날 출범한 완주군 국민디자인단은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이은영 동국대교수)'와 협업으로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정책수요자 및 공무원이 참여해 본격적인 수요자중심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주군 '가정내 돌봄 결핍 지역사회 엄마쌤 교육통합모델 구축'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늘어나는 학교 부적응과 소외 학생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동 대처할 수 있는가에 출발해 그 대안으로서 지역의 삶의 주체인 학부모 엄마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결핍아동과 학부모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다. 완주군은 오는 11월까지 지역사회 엄마쌤 교육통합모델 개발과 프로토타입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제안을 마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농번기철 우리가 나선다

완주군 재난안전과·산업단지·농업농촌식품과 직원들 일손 도와

농번기철을 맞아 완주군청 직원들의 일손 돕기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재난안전과, 산업단지, 농업농촌식품과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탰다.

우선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11일 경천면 석장마을을 찾아 마늘수확을 도왔다.

일손 돕기에 참여한 20여명의 직원들은 약 400평 면적의 마늘수확을 도왔고, 농민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도움을 받은 박종남씨는 "마늘수확 작업이 단순하면서 힘든 일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줘서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이번 일손돕기에 나서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완주산업단지와 농업농촌식품과 직원들이 농가를 향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재난안전과, 산업단지, 농업농촌식품과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탰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화산면 우월리 원우마을 박명기씨의 양파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직원 15명이 참여해 양파캐기 작업을 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권현식 산업단지사무소 운영팀장은 "농촌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기존 농민들도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데, 새로 정착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돼 귀농농가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농업기술센터 예산 집행 속도

부서별 향후 추진계획 점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1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5개부서 과장, 담당,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총력을 위한 자체 특별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별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신속집행추진에 문제점 해소와 부서별 집행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지난 6월 1일 1차 보고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신속집행 대상사업(총 566억원 대비 60%, 339억원)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고 방안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11일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자체 특별 보고회를 열었다.

이어 재정 신속집행의 취지를 잘 살려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우수 수공예품 선보여

농업기술센터 '국제 차 문화대전' 참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6회 국제 차 문화대전에 참가했다.

'쉽게' 차를 마시고 '함께'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차 문화를 형성하고자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안시성옹기'(대표 안시성), '징게쟁이들'(대표 박광철)이 참가하여 생활옹기, 도자기, 수공예품 등을 전시, 홍보, 판매하였다.

근대문화유산 제403호로 등재된 가마에서 나온 안시성옹기의 생활옹기와 징게쟁이 수공예전문가들이 만든 도자기, 짚풀공예, 압화, 한지공예 등에 행사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멋스러운 수공예품에 감탄을 자아냈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에게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전단지 및 지평선 쌀과 누룽지를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행사에 참가한 안시성옹기 대표 안시성은 "김제시 우수 수공예품을 알리고 김제시의 유구한 문화적 자긍심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은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내 고장의 우수 수공예품을 알리고 뿌리 깊은 농경문화의 유산을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본계획 착수

2021년까지 사업비 59억 투입

완주군이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완주군은 최근 소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갖고, 예비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전문가초청, 워크숍, 추진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가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PM단 등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또 내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소양면 황운리를 중심지로 총 사업비 59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예비계획을 기반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사업일환으로 구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 커뮤니티 활성화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문화거리조성, 리모델링 정비, 경관조명 등 지역경관개선 사업과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부량면 보리타작·콩 파종 한창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영하) 들판에서는 현재 보리타작과 함께 콩 파종이 한창이다.

쌀 소비 감소 및 쌀값 폭락에 따른 대체작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배와 판매가 비교적 용이한 논콩 재배가 작년부터 부쩍 늘어 나고 있는데 작년 76농가 132ha에 비해 금년에는 2배가량 증가한 119농가 270ha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부량 전체 논농사의 17%에 해당한다.

특히 금년부터 정부에서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논콩 재배농가에 대해서 ha당 28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논콩재배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제 부량면의 이모작은 전통적으로 보리와 벼 재배에서 보리와 콩 재배로 크게 탈바꿈 하고 있다.

부량면사무소에서는 이같은 농업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 그리고 공동 종자구입을 통하여 재배의욕을 북돋았고 작년 3월 부량콩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김제시의 지원을 받아 콩콤바인 2대를 확보함으로써 급증한 콩 재배면적으로 인한 수확기 영농차질을 대비하였던 것이다.

임영하 면장은 농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농가를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